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

| 3월30일 화요일 | 보 도 자 료 |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, Best Jeonnam |
|---|---|---|

| 실과 | 친환경농업과 | 과장 | 이 정 희 | 팀장 | 마 성 간 | ☎ | 286-6330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
# 전남도, 2021년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 '전국 최다 확보'

- 국비 16억원 확보, 녹비종자 및 제충국, 천적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-

전남도는 지력 증진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녹비종자 및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로 4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특히 전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펼쳐 유기농 인증면적이 무농약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비 31억5백만 원 중 16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.

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비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국비 예산의 52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
유기농업 자재는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신해 제충국 등의 천연물질과 천적을 활용하여 병충해 관리, 작물생육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재이다.

녹비종자 5종(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)은 잡초 생장을 억제하고, 유기질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 시키는 등 농업환경 보전 효과가 뛰어나다.

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가로, 유기인증 농가는 ha당 200만 원, 무농약은 150만 원까지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, 녹비종자는 신청량 전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전년도 11~12월 신청하여 금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서와 자부담 선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군담당자가 확인 후 자재 구입비를 지급한다.

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“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유기농업 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”이라면서 “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농기자재는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